국민 5명중 1명 "이창호 기사, 가장 좋아 해"

한국갤럽 국민 의식 조사 … 바둑인구 760만명 추산

80%이상 "바둑, 자녀 교육에 도움된다"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바둑을 둘 줄 알고, 프로기사 중 이창호 9단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국민의 80%가 바둑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 조사한 '바둑에 대한 국민의식'에 따르면 6월 현재 국내 성인 바둑인구는 약 766만명(제주도 제외)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20.5%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 1992년 36.5%보다 16%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2004년의 20.3%보다는 0.2%포인트 증가 추세이다. 바둑인구는 최근 몇 년 간 2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둑인구는 남성(36.4%)이 여성(5.1%)보다 높았으며 40~50대 연령층 중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바둑인구가 많았다.

바둑실력은 9급 이하의 초급자가 65.5%로 압도적이었고 6~8급이 17.9%, 5급 이상은 15.3%였다. 과거에 비해 초급자 비율은 상승, 중급자 비율은 하락했다.

바둑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국민의 80%가 바둑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긍정적 평가자들 10명 중 9명이 자녀에게 바둑을 가르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익한 이유에 대해선 집중력 개발(40.3%), 두뇌개발(20.3%)이 1, 2위를 차지했고 '성격이 침착해진다' '정서적으로 좋다' '건전하다'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세계대회를 휩쓸고 있는 한국바둑이 국민의 사기 진작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이 양분되고 있으나 바둑이 국위를 선양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2명이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다.

선호하는 바둑기사는 이창호, 조훈현, 이세돌이 톱3 구도를 형성했다. 전체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이창호가 22.3%, 조훈현이 14.2%, 이세돌이 12.9%의 선호도를 보였다. 바둑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창호 28.8%, 조훈현 21.4%, 이세돌 19.7%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이창호가 1997년 이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선호도 선두를 지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조훈현, 유창혁은 하락세를, 이세돌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바둑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TV(74.6%), 인터넷(13.8%), 신문(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양인 중에서 세계 1인자가 탄생할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바둑 동호인의 29.0%가 '10년 내'로 전망했다. 또 24.8%는 '1세기 내엔 불가능'이라고 응답해 당분간 한중일 위주의 바둑판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10명을 대상으로 6월12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2.5%(95% 신뢰수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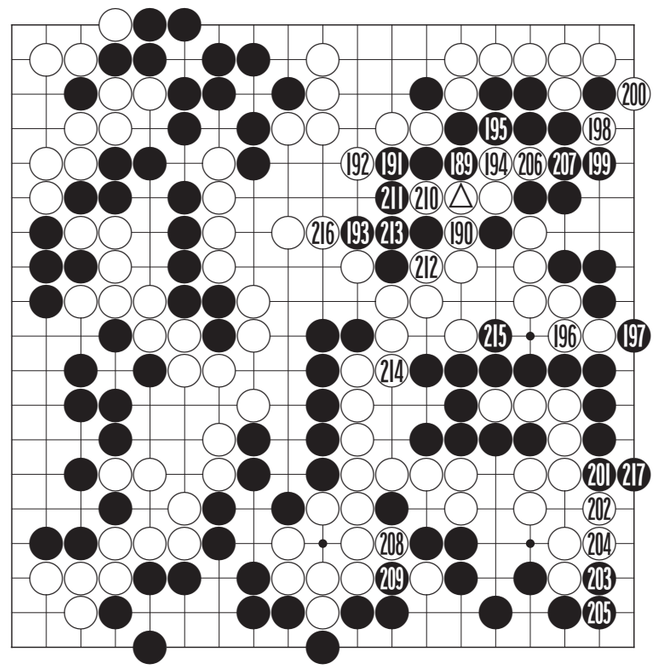
한국기원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 성인남녀 다섯 명 중 한 명은 바둑을 둘 줄 아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5월에 열린 제17회 광일배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모습.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패배를 부른 두번의 실수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4회전 1국 11보 (189~217)

白 김광식 5단 ((주)송림)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위기의 순간에 김광식 5단이 백 △로 느는 호수를 발견해 낸다. 이 수는 그냥 190으로 단수치는 것보다 두집 이상이 이득이다.

광식 5단은 백 194부터 196을 맛있게 선수하고 나서 드디어 반상최대의 곳인 198로 두어 흑 한점을 잡는다. 이것으로 형세는 그야말로 눈터지는 계가바둑으로 반집을 다투는 형국이다. 백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백에게 부가 있다고 할 정도로 김광식 5단이 맹렬히 따라붙고 있는 것이다.

박광주 5단도 형세가 신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초읽기의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 쓰며 흑 210로 밀고 203으로 젖혀 잇는 등 빈틈없는 끝내기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면이 팽팽하면 대개 실수가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광식 5단에게서 드디어 결정적인 실수가 튀어 나왔다. 백 208이 그것으로, 김 5단은 백 대마의 안전을 염려한 것처럼 보이나 이 수는 206과 교환되어 두집 손해수였다. 흑은 거저 3집을 만든 반면 백은 두번을 두어서 흑 한점을 잡아야 두집이다.

또 백 216도 몸을 사린 수로 이 수로도 우변 217에 젖히는 것이 4집짜리로 더 컸다.이 두번의 실수가 결정타가 되었다.

이후로도 많은 수수가 진행되었으나 변화는 없었고 집을 지어보니 흑의 반집승으로 극적인 승부가 연출되었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로 미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JISHAN 엘도라도리조트

바둑 꿈나무들 강원도 여름캠프 오세요

3차례 나눠 … 민물고기 잡기 체험도

바둑 전용 캠프가 생겼다.

킹스필드는 바둑 꿈나무들을 위해 강원도 횡성군 샘솔마을에 국내 최초로 바둑 전용 캠프장을 마련한다.

이곳에서 연중 바둑 캠프를 열기로 했고, 올 여름에는 오는 8~10일, 15~17일, 22~24일 3차례 나눠 '한여름날의 바둑캠프'를 갖는다.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더해주는 바둑 교육과 '계곡 민물고기 잡기' 등의 생태체험이 곁들어진다. 또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한 '창작사활놀이' '다도예절'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곳은 주천강을 낀 주변 풍광이 빼어나 여름 피서지로도 그만이다.

이번 바둑캠프에는 어린이 10명당 보조교사 1명이 따라붙어 세심한 지도와 함께 안전을 책임진다.

또 양건 8단과 한종진 7단 등 프로기사들이 지도다면기에 참여한다. 샘솔마을 주민들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을거리를 준비한다.

문의 02-454-311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돌부처' 이창호 "목진석 쯤이야"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우승 다툼 … 역대전적 24승6패로 앞서

이창호 9단〈사진〉이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통산 3회 우승에 도전한다. 이창호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준결승에서 강동윤 8단을 168수 만에 불계로 물리쳤다. 이로써 이 대회 결승전은 이창호와 목진석 9단의 대결로 압축됐다.

제2, 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에 올랐던 이창호는 전기 대회 결승에서 강동윤 7단(당시)에게 2-1로 패하며 3연패 달성을 눈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다.

이창호와 목진석의 역대전적은 이창호가 24승 6패로 월등히 앞서고 있다. 3번기로 펼쳐지는 결승전은 4일 밤 8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바둑TV에서 생중계로 감상할 수 있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5천만원이며, 제한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KIXX 조훈현 9단 프로 입문 46년만에

세계 첫 통산 2,500대국 출전 눈앞에

광주 KIXX의 조훈현 9단〈사진〉이 세계 최초로 통산 2,500대국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훈현은 지난달 17일 한국기원에서 벌어진 제10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국내 선발전에 출전해 윤준상과 대국, 총 2,498국째를 기록했다.

이로써 일본에서 활동했던 전적까지 포함해 현재 1,770승 9무 719패(승률 71.11%)를 기록 중인 조훈현은 통산 최다승(1,770승), 통산 최다타이틀 획득(157회), 타이틀전 최다연패(패왕전 16회), 최연소 입단(9세) 등 수많은 신기록의 보유자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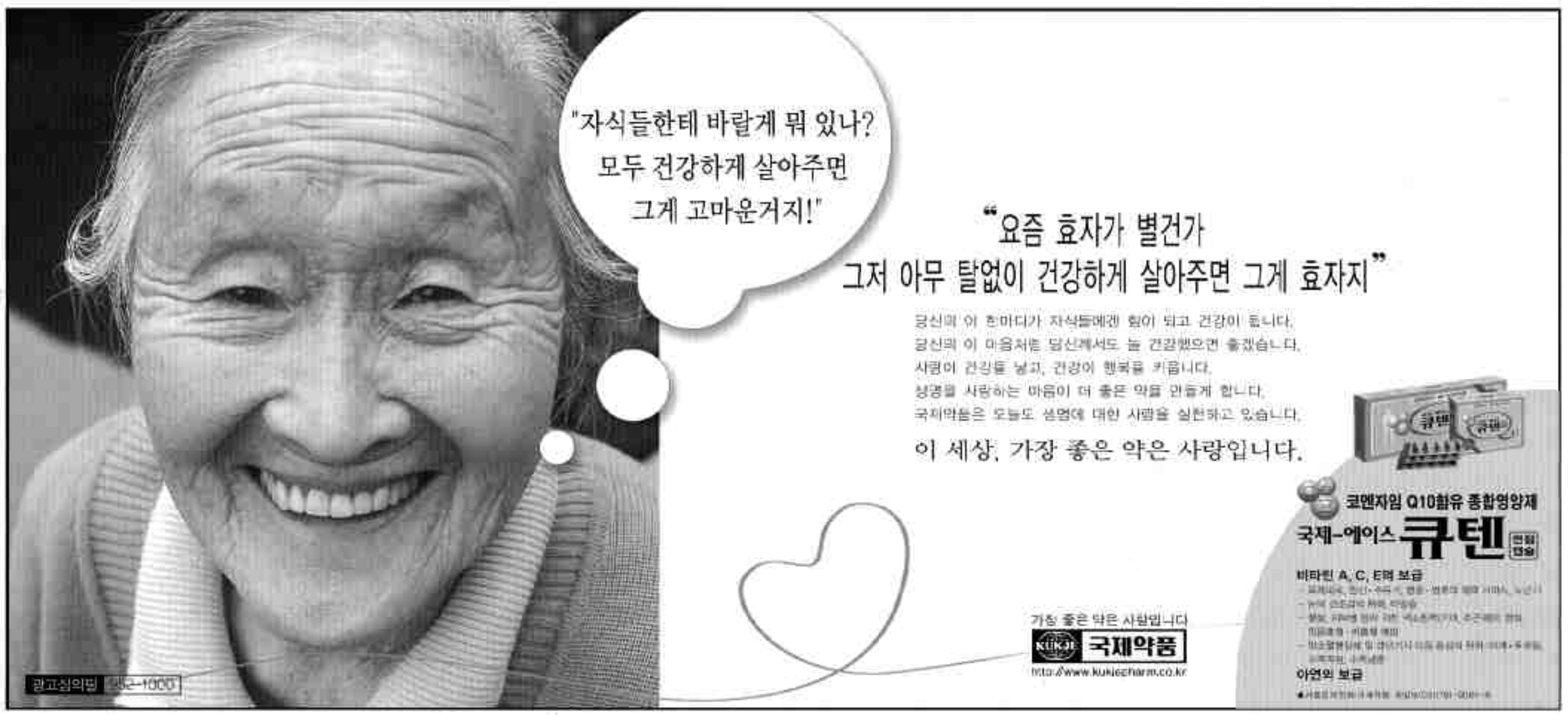
조훈현은 오는 10일 벌어질 한게임과의 9라운드 경기에서 대망의 2,500국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 962년 프로에 입문한 조훈현이 46년 만에 달성하게 될 2,500대국 기록은 한중일을 통틀어 세계 바둑 사상 처음으로 46년 동안 연평균 55국을 두어야 달성할 수 있는 대기록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中 아홉 살짜리 프로기사 탄생

중국에 아홉 살짜리 프로기사가 탄생했다. 지난달 24일 끝난 중국 입단대회를 통과한 양딩신군의 나이는 만 9세 9개월. 10살에 입단했던 창하오를 뛰어넘는 중국 바둑역사상 최연소 프로다. 세계 최연소 입단기록은 한국의 조훈현(9세 7개월)이 보유 중이고, 일본에선 조치훈의 11세 기록이 40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중국 입단대회는 상위 12명은 무조건 입단시키고, 13위 이하 20위권 중 15세 이하(93년 이후 출생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다. 올해도 이 방식에 따라 4명의 어린 기사가 포함된 18명(여자 2명)이 프로가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